“예술인 활동 플랫폼 체계화 필요”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등의 주최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정착을 위한 민·관의 역할 및 과제’를 주제로 한 포럼이 28일 전일빌딩245에서 열렸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제공〉

광주문화도시협의회·민예총 등 예술인 지위·권리보장 조례 정착 전일빌딩 245서 포럼 개최 민·관 협치 통한 지원 필요성 강조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는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스템과 플랫폼, 커뮤니티를 체계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모든 정책과 지원은 이를 전제로 진행돼야 하며 관에서 이 같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와 광주민예총, 상상실현네트워크가 28일 전일빌딩 245 시민마루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정착을 위한 민·관의 역할 및 과제’.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예술인 권리 보장 조례 이후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현되는지를 검토해보고 대안 등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

정두용 상상실현네트워크 공동대표(청년문화허브 감독)는 “문화예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멍석이다. 그런 시스템과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체계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며 “새가 양 날개로 날 수 있듯 민과 관에서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이 그럴 의지가 없다면 그럴 의지를 가지도록 민간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그럴 의지가 있다고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9월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예술인의 권리 및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 등으로 예술인의 권리 침해 방지 및 권리 구제 차원에서 시작됐다.

아울러 광주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올 초에 제정해 시행 중이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민관정 합동의 조례 TF팀이 중점으로 다뤘던 것은 ‘광주형 조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성배 광주시 문화정책관은 “시는 적극적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민관협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여한 이현미 광주 민예총 사무처장은 “조례제정까지는 민관정의 거버넌스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후속조치는 전적으로 행정이 주도해 나가는 과정이다”면서도 “예산이 수립되고 예술인권리보장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장이 적극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심의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수경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는 광주시에서 제정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엄 대표는 “조례는 집행과정에서 근거가 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며 “예술인권리보장법 영역이 내용과 방식에서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문화예술계와 개인에 대해서도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즉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예술인으로서 지위와 권리 부분에서 어떤 보장을 받고 어떤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술인 직무교육’(가칭)과 각종 예술지원 사업의 연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인형 광주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조례 시행의 의의와 예술인 인식의 인식전환’ 토론문에서 권력관계로 묶어낼 수 있는 예술계 내 모든 관계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예술인 직무교육 시행을 제안했다.

조 위원은 “공공지원 예술사업에서 예술인의 권리보호, 권력관계에서의 권한의 한계 등을 파악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예술지원 사업에서의 불합리성이나 불공정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와 제도의 내용과 예술계 내 인식 개선 등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변천사 조명

30일 전남대박물관·12월1일 순천대 문화유산연구소 학술대회

호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 ‘광주’는 예로부터 유서 깊은 고을이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적잖은 역사적인 변곡점을 지나왔다. 통일신라시대 때는 무진주로 불렸는데 당시 9주 5소경의 한 주였다.

광주의 역사와 변천, 지명 등을 다채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2개의 학술대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먼저 전남대박물관은 30일 오후 1시 30분 광주시청(2층 무등홀)에서 ‘광주-무진주의 형성과 변천’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임영진 마한연구원장이 ‘광주 무진주의 도시 구조’를 발표하고 토론자로 박태우 전 백제문화재연구원이 나선다. 이어 황호균 광주시 문화재위원이 ‘무진주와 광주목 사찰문화유산’, 양해웅 호남문화재연구원이 ‘광주읍성의 구조와 관아 건물의 위치 비정’ 등을 발표한다. 이어 ‘광주읍성 해체와 광주 도시 변천 과정’(윤영기 전남대), ‘광주 시가지 역사문화자원의 관광활성화 방안’(나병남 아시아인문재단)이 진행된다.

오는 12월 1일에는 순천대 문화유산연구소가 ‘후백제 왕조 광주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1시 광주시청 2층 무등홀.

임영진 마한연구소장

박영재 광주시 문화유산자원과 학예연구사는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할 당시 첫 수도가 완주가 아닌 광주라는 주장과 연구 성과가 있다”며 “이런 논의 등을 토대로 광주의 역사성을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말했다.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가 ‘후백제의 건국과정과 초도 광주’를 발표하며 곽승훈 청련사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정민 전남대 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발굴조사를 통해 본 무진고성의 성격’을 이야기한다. 이어 ‘후백제 발상지 순천·광양만권의 견훤 관련 유적’(최인선 순천대 교수), ‘전장으로서 나주와 서남해, 그 전략적 가치’(송영대 건국대 강사), ‘견훤설화의 색 동물 화소 연구’(천진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이 있을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인권활동 매진 고 김병균 목사 정신 계승

추모사업회 창립총회…내년 1주기에 추모 문화제 개최 등

일평생 인권활동을 펼친 고(故) 김병균 목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추모사업회 창립총회가 최근 개최됐다.

광주전남 시민운동의 대부이자 농촌목회와 교회 인권 등에 매진했던 고(故) 김병균 목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추모사업회가 꾸려졌다.

추모사업회는 최근 나주정미소에서 ‘광야의 소리 김병균 목사 추모사업회 창립총회’를 갖고 회장에 최진연 씨, 부회장에 이연임과 조규성 씨, 집행위원장에 안희만 씨를 선임했다.

추모사업회는 내년 2024년 김병균 목사 추모 1주기를 전후에 3월 29일 추모 문화제를 열고 30일 추모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1948년 강진군에서 태어난 김 목사는 강진 중앙초등학교와 광주서중을 졸업했다. 호남신학대학교를 거쳐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갈릴리 신학대학원 신학 박사를 받았다.

지난 1978년부터 장성 양유교회를 시작으로 장흥, 신안, 나주 등지에서 40여 년간 농촌목회를 펼쳤다. 예장 통합 전남노회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예장농촌목회자협의회 회장, 광주기독교협회회장(광주NCC)을 역임했다.

김 목사는 지난 1995년 11월 범민련 남측본부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997년 5월에는 시위 중 사망한 조선대 류재을 군에 대한 경찰 폭력에 항의하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장헌권 광주 서정교회 담임목사는 “김 목사님은 평생 농촌목회와 교회 인권, 시민 활동을 통해 약자와 소외된 자 등을 위해 헌신하셨다”며 “추모사업회가 꾸려진 만큼 앞으로 김목사님 유지를 받들고 그 정신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마을주민들이 함께 하는 ‘방과후 돌봄’

수완 장자울마을 ‘다함께 돌봄센터’ 다음달 2일 개소식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한 광주여성가족 친화마을사업 등으로 마을돌봄을 실천해 온 수완 장자울마을(휴먼시아4단지 임차인 대표회·이하 장자울)이 한울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한다. 오는 2일 오전 11시 장자울 개소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함께 돌봄센터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다. 장자울 임차인 대표회는 ‘한울타리 작은도서관’을 운영 2017, 2019, 2020년 운영, 광주시 여성가족친화마을 공모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후 광산구 광산마을아이놀터 공모사업 등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이번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에 지원했고 선정됐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광주여성가족재단의 여성가족친화마을사업과 성격상 유사하다. 생활환경 안에 있는 익숙한 마을주민들이 함께 안정감 있는 돌봄을 제공하고, 방과후 돌봄이나 주말 및 방학돌봄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이다.

광주여성가족재단 김경례 대표이사는 “역량을 갖춘 광주여성가족 친화마을 공동체들이 더 큰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축하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출신 활동가들의 활동 저변을 넓히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